

# 4/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2014년 경제 전망

**박희석**

서울연구원  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## 4/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2014년 경제 전망

	요약	3
I.	최근의 서울경제 여건	4
II.	서울의 4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	7
III.	2014년 서울경제 전망	15
IV.	요약 및 시사점	19
	부록 : 2013년 4/4분기 주요 조사결과	22

박희석

서울연구원  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02-2149-1227  
hspark@si.re.kr

###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 및 고용은 개선, 소비는 둔화

서울의 산업생산은 2013년 10월 2.3% 증가하여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개선되었다. 내수로 대표되는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도 최근 6개월간 평균 2.8%로 성장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줄어들고 있어 향후 내수 회복의 지연이 우려된다.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최근 3개월 평균 1.6% 증가하였다.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13년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평균 2.5%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. 이러한 상승 기조가 일시적 현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

### 서울의 체감경기지수는 개선되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부정적

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4/4분기에 전(前) 분기 대비 4.0p 상승한 91.7로 개선되었다.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 또한 전 분기 대비 각각 3.7p, 9.4p 상승한 89.4, 71.5를 기록하였다. 그러나 아직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현재 체감경기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138.2를 기록하였으나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0.6p 감소하고 있어 체감경기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.

### 2014년 서울경제는 3.0% 성장세 예상

2014년 서울의 「경제성장률」은 전년도 대비 0.8%p 성장한 3.0%로 2014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. 2014년 「민간소비지출」 증가율은 2.7%로 전년도 대비 1.0%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14년 「물가상승률」은 공과금 인상, 소득여건 개선 등 물가상승 압력의 작용으로 전년도 대비 0.6%p가 오른 2.6%로 전망된다. 서울의 고용상황 개선으로 「실업률」은 전년도 대비 0.4%p가 감소한 3.5%로 예상된다.

### 고용 및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

서울의 고용률은 3년 연속 59.7%로 홍보하고 있어 여성 및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지원 등 안정적인 고용여건 조성이 필요하다. 또한 서울경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류, 구두 등 서울형 제조업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.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변동 폭이 큰 생활물가의 안정화와 사금융의 불법대출 예방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## 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
###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 및 고용은 개선, 소비는 둔화

「산업생산지수」는 10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

- 최근 중간재 생산의 급증과 소비재 생산의 꾸준한 증가세로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3개월 연속 상승세
-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3년 7월 -12.7%로 최저점을 찍고 그 후 하락폭이 감소하여 10월 들어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
- 자본재를 제외한 소비재 및 중간재의 생산 증가로 2013년 10월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2.3%가 증가
- 부문별로 자본재, 소비재 및 중간재 생산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-12.7%, 5.5%, 7.9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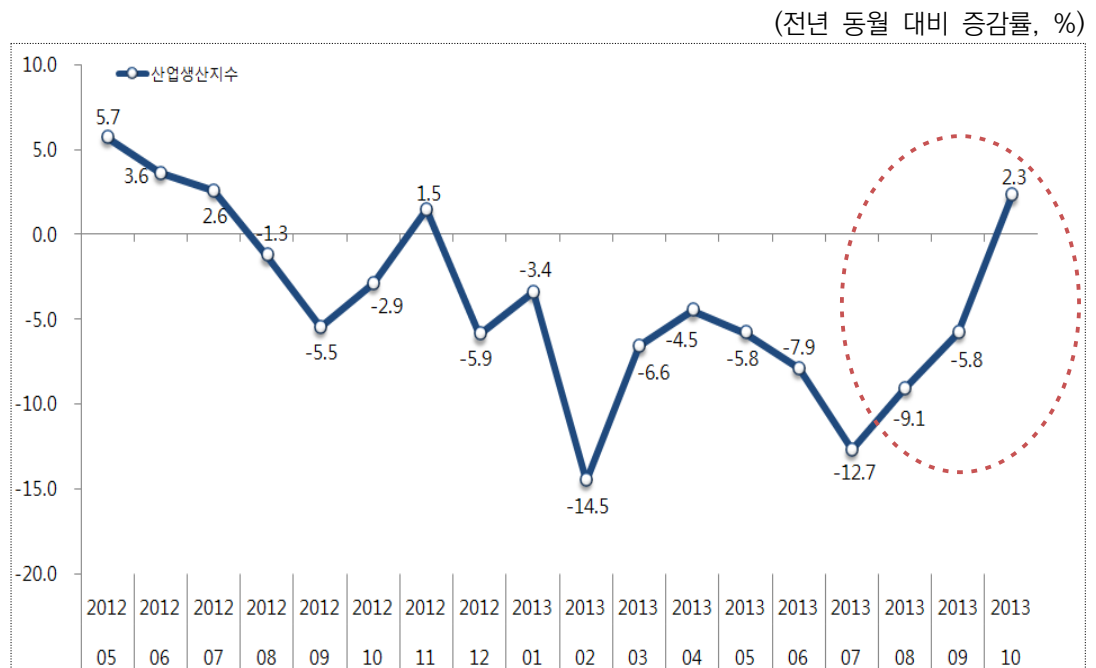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서울의 산업생산

자료 : 통계청

##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최근 6개월간 평균 2.8%가 증가

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201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로 1.7%가 증가
-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 증가율은 2013년 하반기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3년 8월 7.7%로 최고점을 찍은 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감소
-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-0.7%,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4.4%를 기록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판매액지수가 증가
- 그러나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계절적 영향으로 기복이 큰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어 향후에는 내수 회복의 지연이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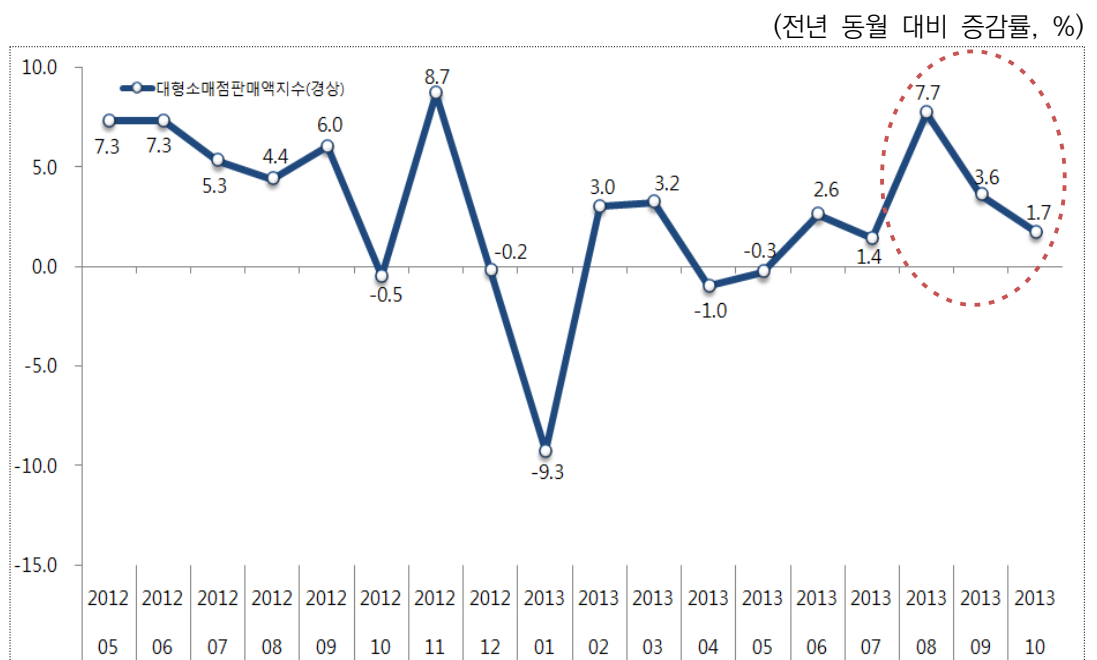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

자료 : 통계청

## 「취업자 수」 증감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

- 2013년 10월 서울의 「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2.2% 증가한 5,156천명
  - 「취업자 수」 증가율은 2013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3개월 평균 1.6% 증가
- 2013년 10월 서울의 「청년층(15~29세) 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2.4%가 증가한 875천명을 기록
  - 2012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9월 플러스 증가로 반전하여 2개월 연속 2%대 증가율을 유지
- 청년취업의 활성화정책과 하반기 취업의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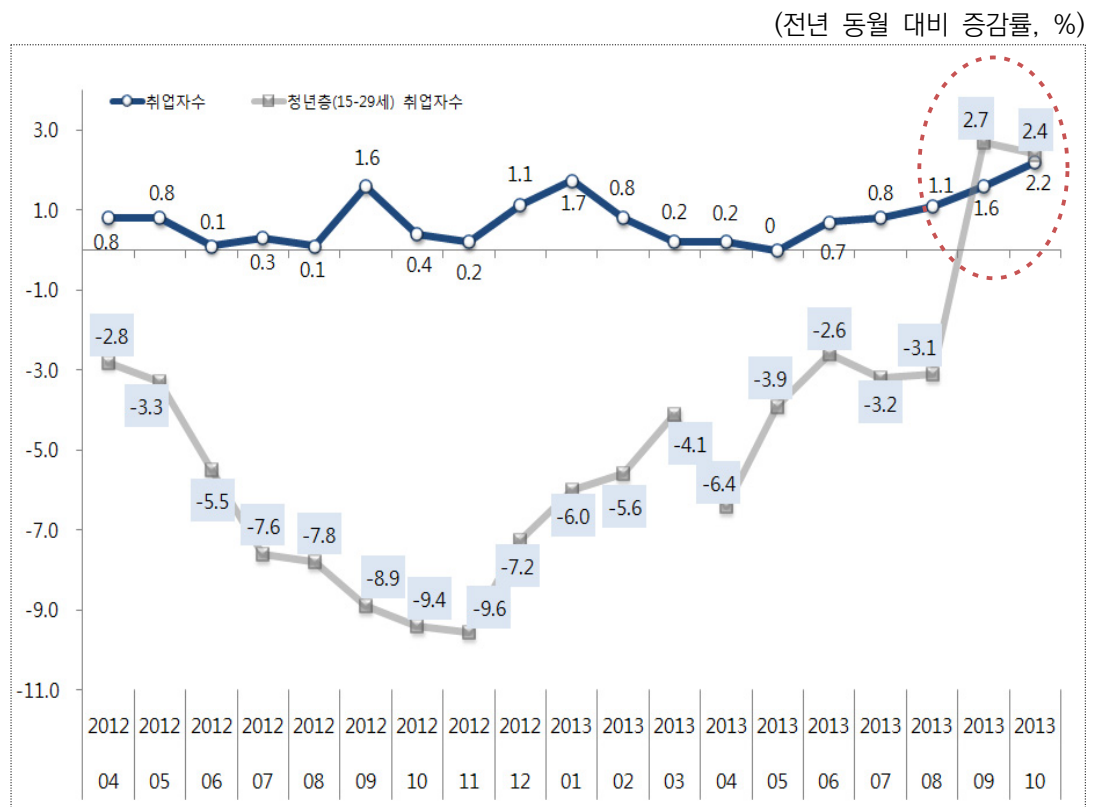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서울의 취업자 수

자료 : 통계청

## II. 서울의 4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
서울의 체감경기지수는 개선되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부정적

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4분기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세

- 2013년 4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91.7로 전(前) 분기보다 4.0p 상승
  - 2013년 3분기를 제외하고 2012년 3/4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7.9p가 증가
-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와 추석명절 이후 하반기 서울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
-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3년 동안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여전히 부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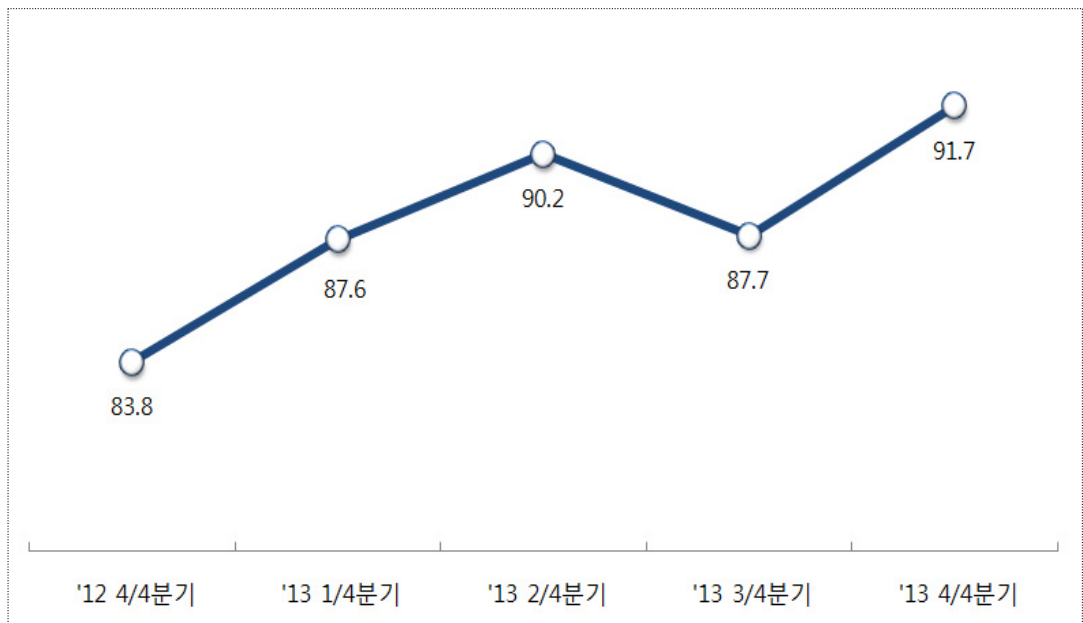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## 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 지수도 소폭 상승

- 2013년 4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3.7p 상승한 89.4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0.5p 하락한 101.8을 기록
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4분기 연속 80대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으나 4분기 연속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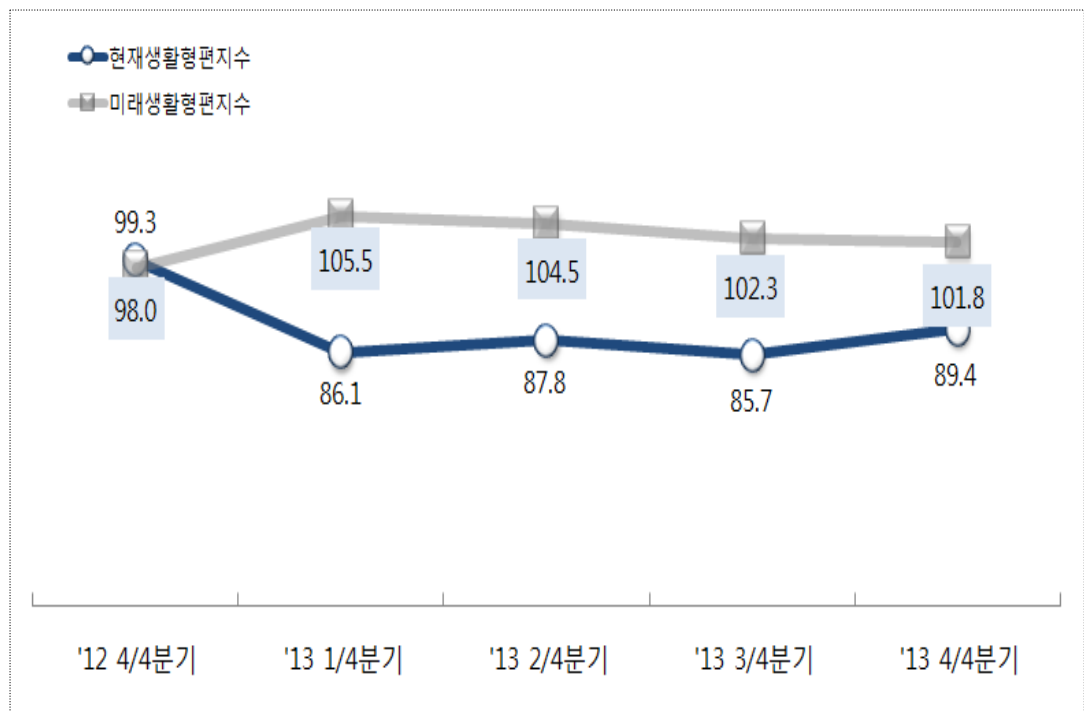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##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지표 값은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

- 2013년 4/4분기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9.4p 상승한 71.5를 기록
-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년 동기 대비 23.2p가 증가하여 1년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



- 그러나 아직 기준치(100)를 크게 밑돌고 있어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- 2013년 4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96.8로 전 분기 대비 2.7p가 상승
- 그러나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2013년 1/4분기(100.4) 이후 평균 96.9로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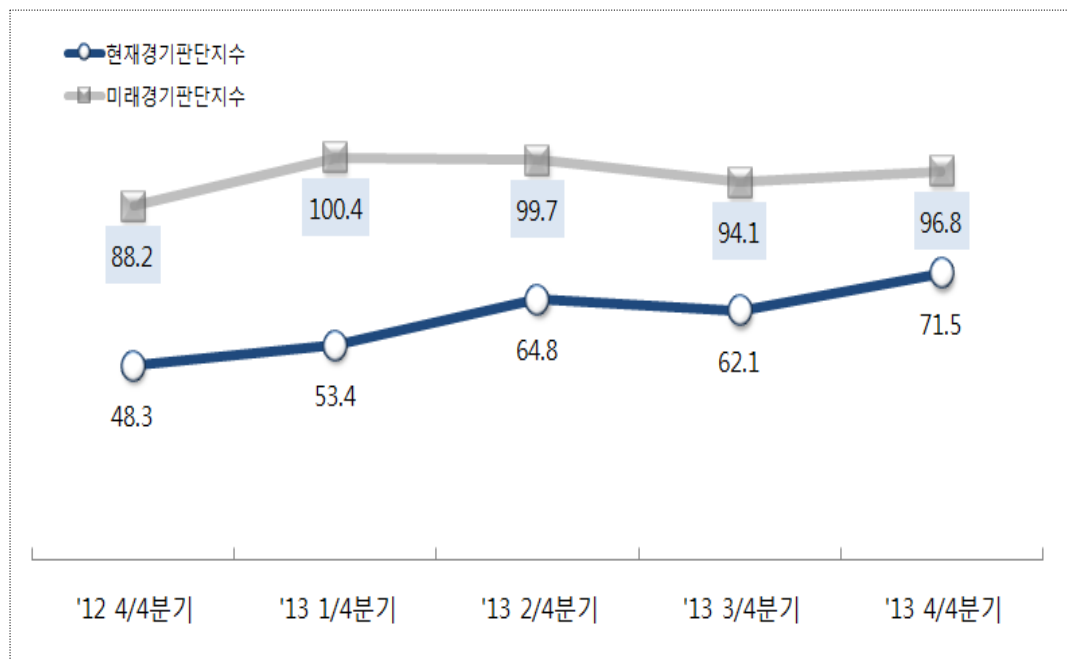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#### 서울의 현재와 미래 소비지출지수는 소폭으로 개선

- 2013년 4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92.3으로 전 분기 대비 0.3p가 상승
- 현재 소비지출 수준은 3분기 연속 평균 92.0으로 현재 경기에 대한 개선이 미미
- 2013년 4/4분기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2p 상승한 99.4를 기록
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5분기 중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소비지출의 큰 개선은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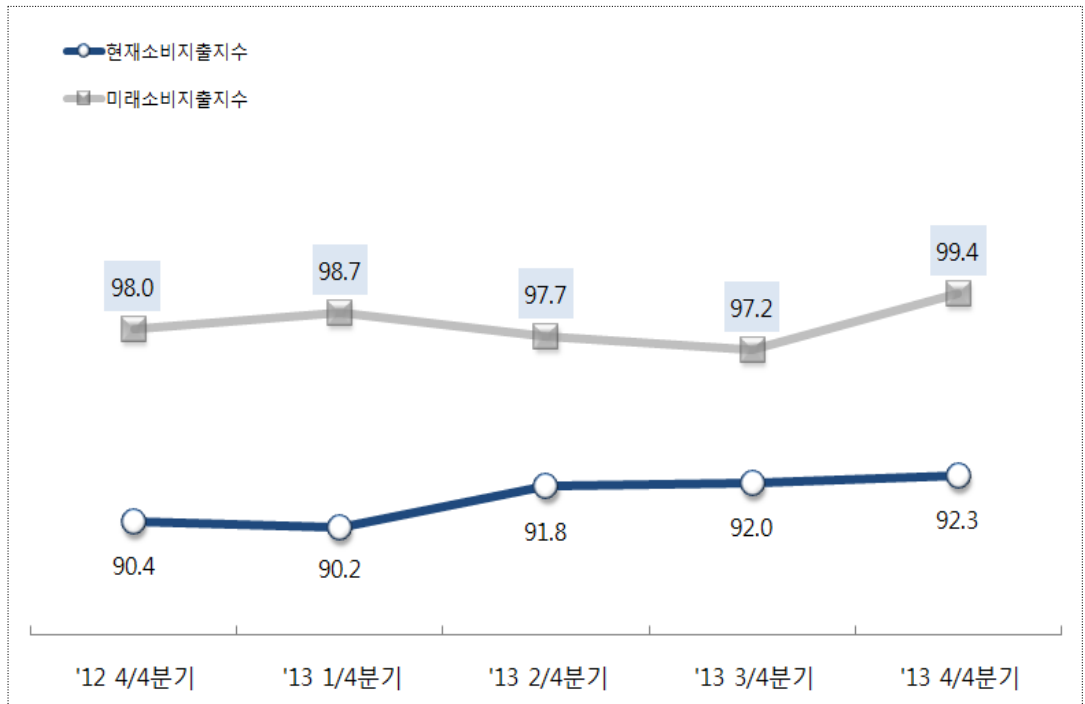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#### 품목별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도 모든 품목에서 지출이 증가

- ‘교육/문화비’는 110.5로 전 분기 대비 2.1p 상승하여 향후 서울시민의 지출은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
- ‘주거비’는 전 분기 대비 3.0p 상승한 103.4, ‘교통/통신비’는 전 분기 대비 3.1p 상승한 103.2를 기록하며 기준치(100)를 상회
- ‘식료품비’는 전 분기 대비 0.5p 상승한 97.9, ‘기타’ 항목은 전 분기 대비 3.5p 상승한 94.3, ‘의류비’는 전 분기 대비 1.1p 상승한 87.4를 기록
- 전 품목에서 전 분기보다 향후 소비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식료품과 의류 및 기타 항목은 여전히 기준치(100)를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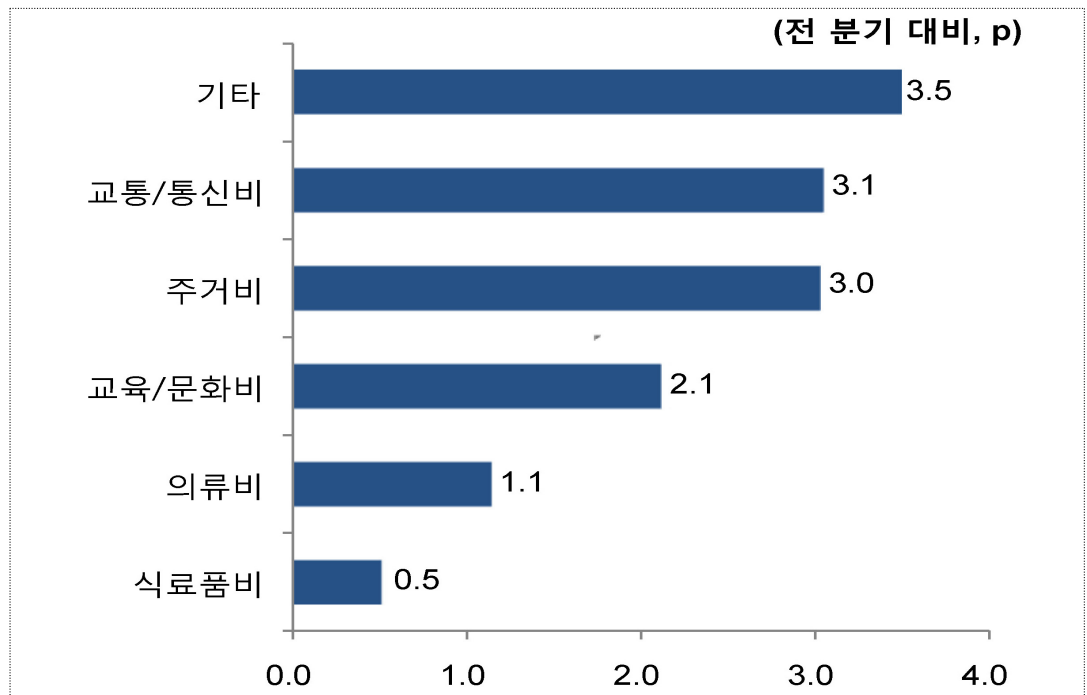


그림 8. 서울의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의 전 분기 대비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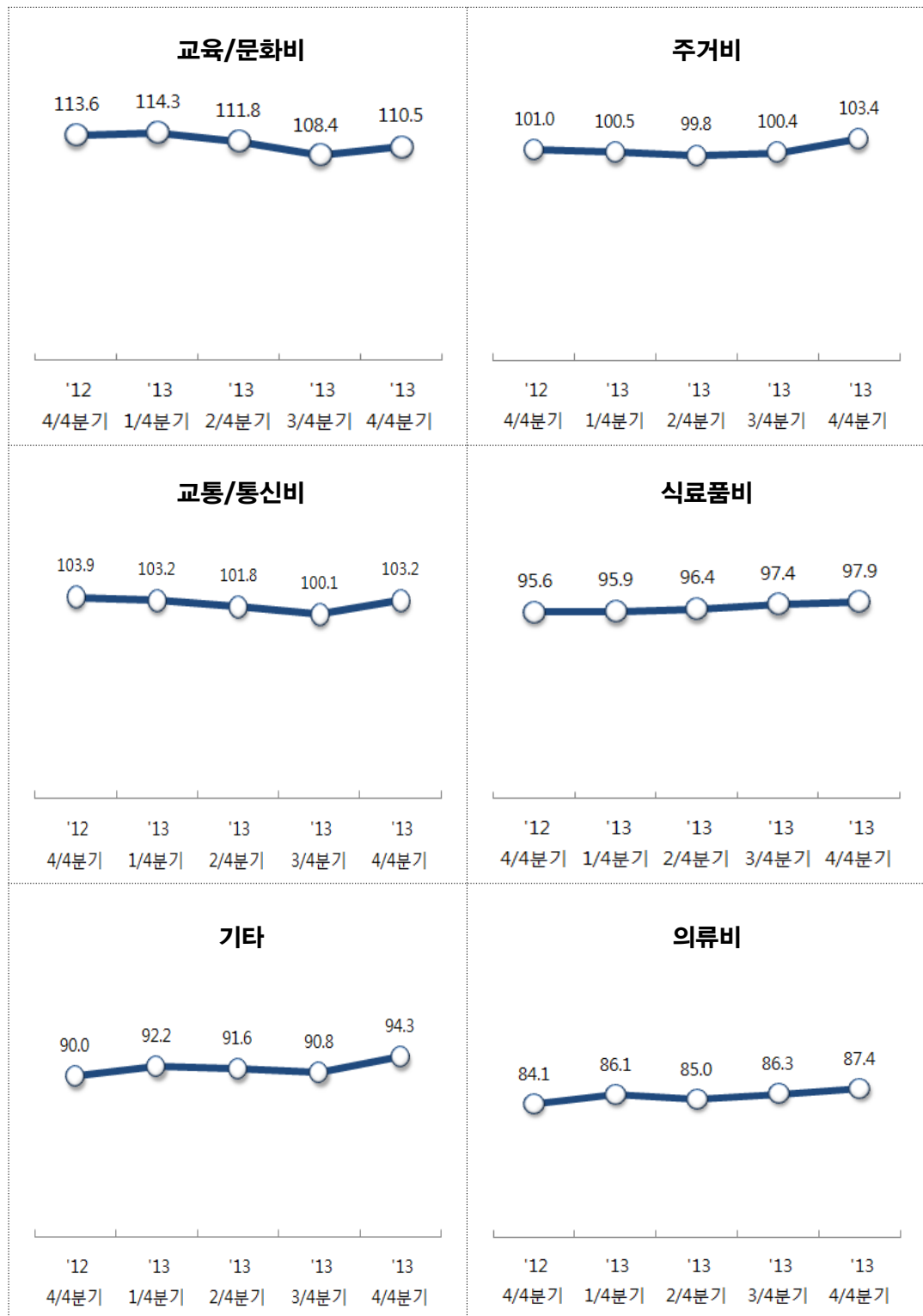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

## 내구재 구입태도가 개선되었고, 주택구입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

- 2013년 4/4분기 「내구재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4.7p 상승한 99.1을 기록
  - 여전히 기준치(100) 미만이나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, 가구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
-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104.9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8.0p가 상승
  - 전·월세 가격 급등, 저금리, 취·등록세 하락 등의 영향으로 3/4분기 대비 서울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태도지수는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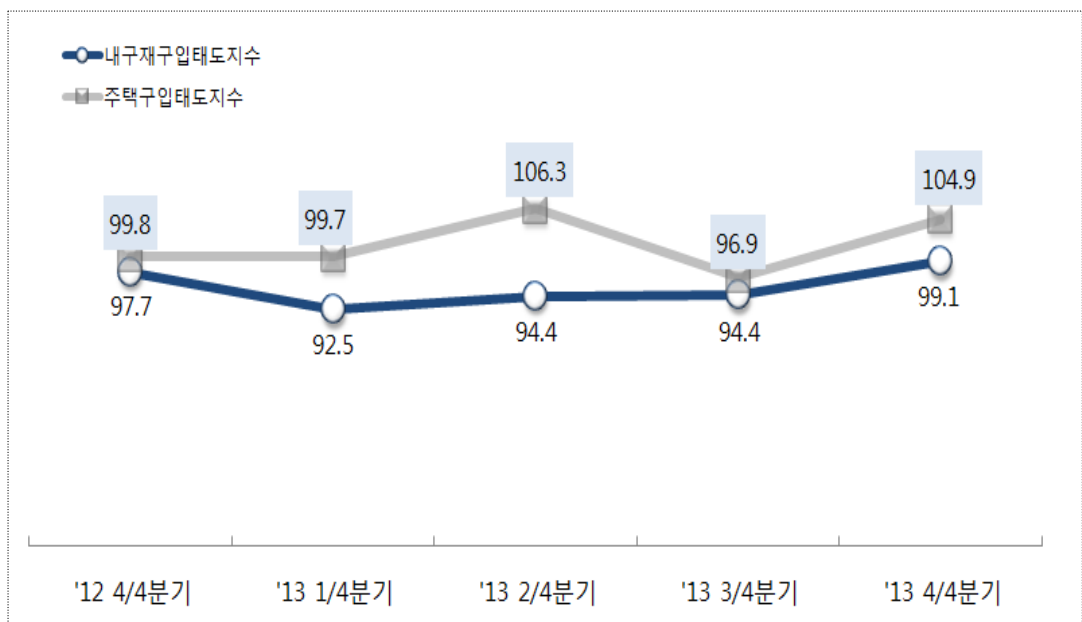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.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

## 물가는 지속적인 하락이 전망되며 고용상황은 개선이 미미

- 2013년 4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5.0p 하락한 138.2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
  - 2013년 1/4분기 대비 8.9p 감소하며 저물가 기조의 지속이 전망
- 2013년 4/4분기 「순자산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2p 상승한 97.3으로 4분기 연속

으로 기준치(100)를 하회

- 2013년 4/4분기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91.2로 전 분기 대비 0.6p가 감소
- 최근 4분기 연속으로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가 감소하며 여전히 기준치(100)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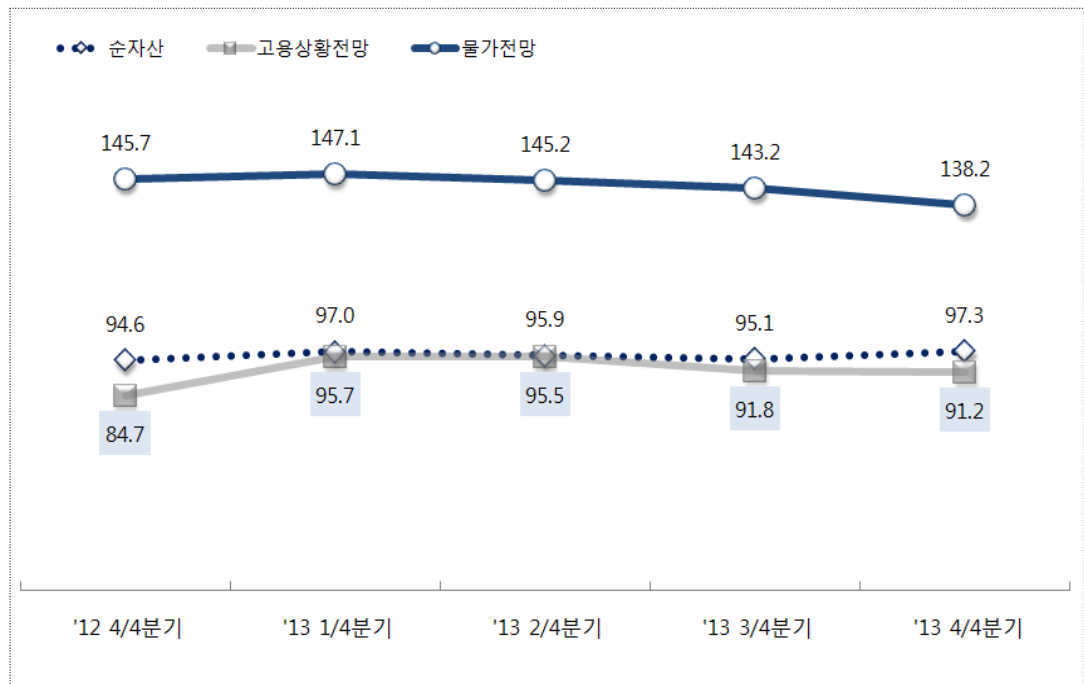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. 서울의 순자산, 고용상황전망, 물가전망지수

### Ⅲ. 2014년 서울경제 전망

## 2014년 서울경제는 완만한 성장 예상

2014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.0%로 전망

-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로 2014년 서울경제는 점차 회복하여 전년도 대비 0.8%p 상승한 3.0%의 성장이 예상
-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가계나 기업의 기대심리가 향상되면서 2014년 서울경제는 상저하고(上低下高)의 성장세가 전망
- 2014년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의 전망치인 3.8%보다 0.8%p 하회
- 민간소비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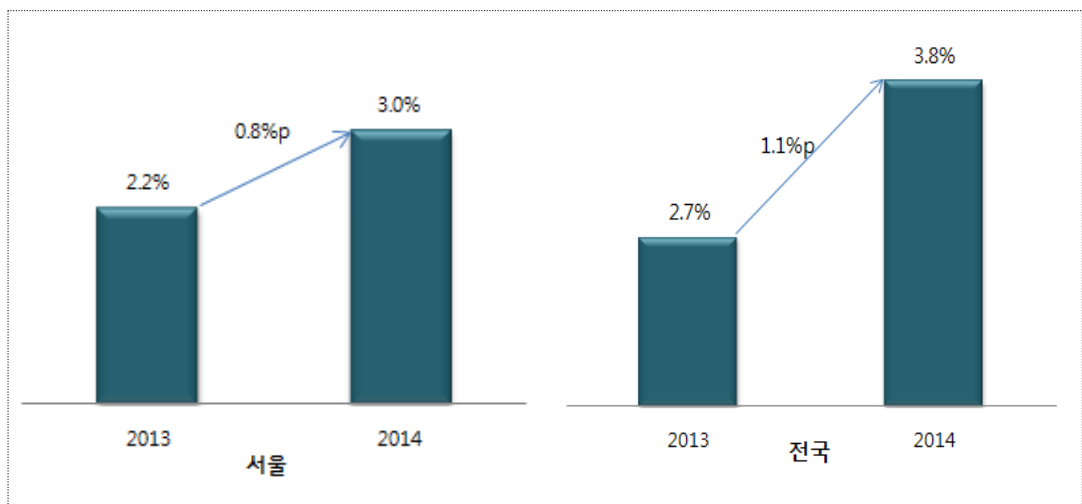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. 2014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10.18.), OECD(2013.11.19.), KDI(2013.11.19.) 전망치 평균

## 2014년 서울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.7%로 전망

- 2014년 서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부담 및 정부의 재정 약화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,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여건의 개선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.0%p가 상승한 2.7%로 예상
-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2013년 4/4분기 「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」 증감률을 보면 모든 품목에서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서울시민의 소비심리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
- 2014년 서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국 전망치인 3.1%보다 0.4%p 정도 낮을 전망
-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교역 증가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률이 전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 민간소비지출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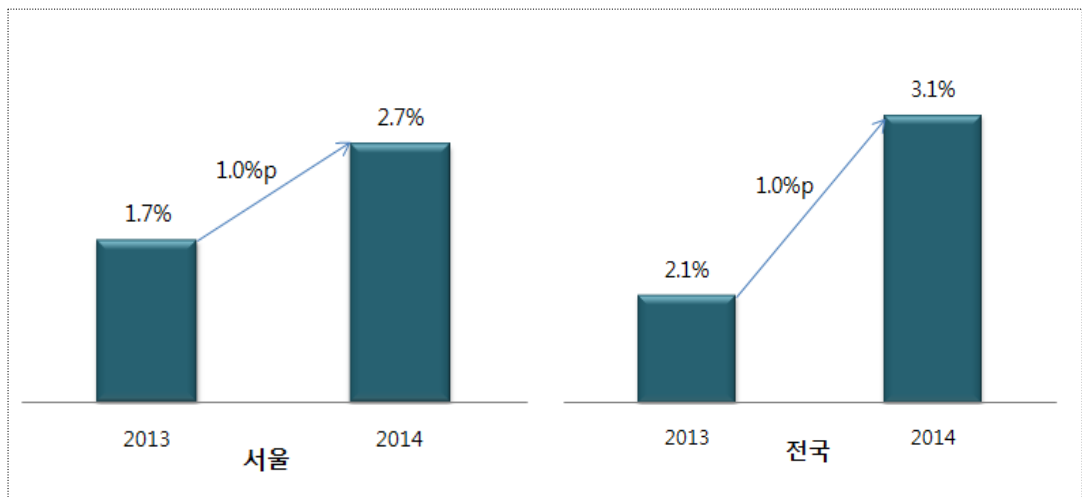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. 2014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10.18.), OECD(2013.11.19.), KDI(2013.11.19.) 전망치 평균



## 2014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.6%로 전망

- 2014년 서울의 물가는 공과금 인상, 소득여건 개선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0.6%p 상승한 2.6%의 오름세가 예상
- 저성장,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2013년 4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%대 저물가 기조의 유지가 전망
- 2014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전국과 보합세
- 대체적으로 서울의 물가상승률이 전국보다 높은 편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의 안정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의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상승률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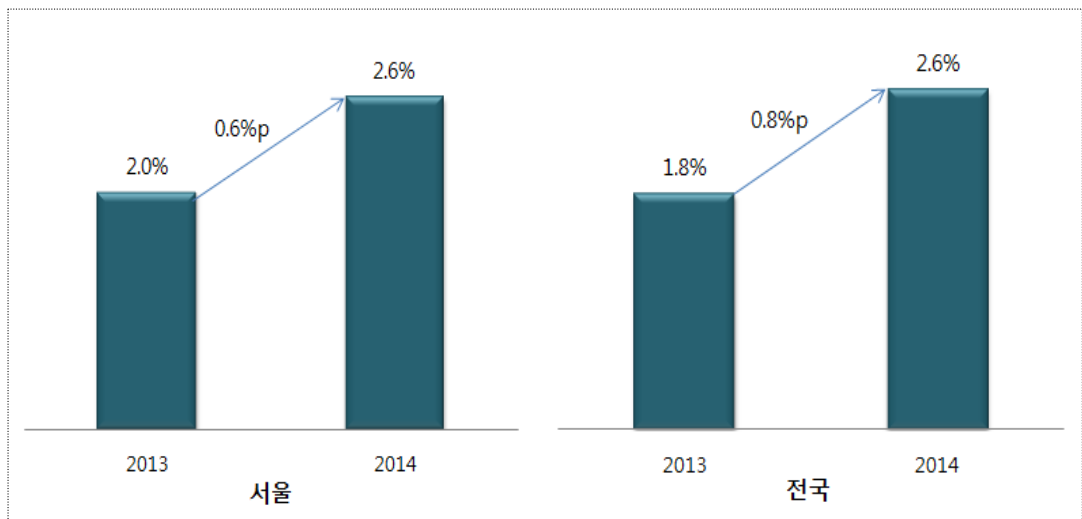


그림 14. 2014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10.18.), OECD(2013.11.19.), KDI(2013.11.19.) 전망치 평균

## 2014년 서울의 실업률은 3.5%로 전망

- 취업자 수 증가 등의 고용상황 개선으로 서울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어 2014년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도 대비로 0.4%p가 하락한 3.5%로 예상
- 과거 2년간 취업자 수의 증감률이 꾸준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총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여건은 다소 긍정적
- 2014년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전망치 3.2%보다 0.3%p 상회
- 최근 고령층(50~60세)과 사회·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과 서비스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서울의 실업률(3.5%)은 전국(3.2%)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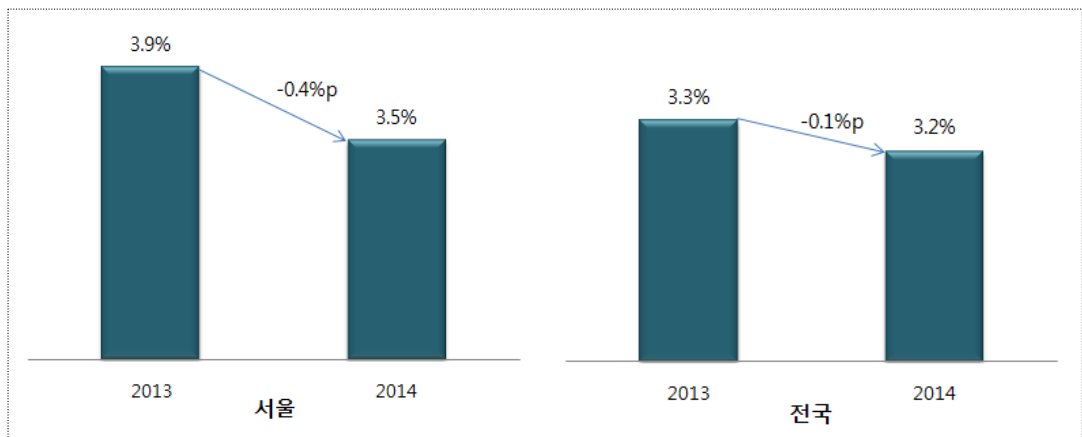


그림 15. 2014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10.18.), OECD(2013.11.19.), KDI(2013.11.19.) 전망치 평균

## Ⅳ. 요약 및 시사점

---

### 4/4분기 체감경기지수는 개선, 2014년 성장률은 3.0%로 전망

#### 서울시민의 체감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

-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4/4분기에 91.7로 전 분기 대비 4.0p가 상승
- 2013년 4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89.4,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71.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.7p, 9.4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(100) 이하
- 저물가 기조의 지속, 취·등록세 하락 등의 영향으로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,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(92.3) 및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(99.4) 모두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

#### 2014년 서울경제는 3.0%의 성장이 전망

- 2014년 서울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점차 회복하여 전년도 대비 0.8%p 상승한 3.0% 성장이 예상
- 서울의 소비지출은 가계대출 부담 및 정부의 재정 약화 등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의 증가,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여건의 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1.0%p가 상승한 2.7% 증가 전망
- 서울의 물가는 공과금 인상, 소득여건 개선 등의 물가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0.6%p 상승한 2.6%의 상승이 예상
-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실업률은 전년도 대비 0.4%p 하락한 3.5%를 전망

---

## 고용 및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

###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, 서민기업의 육성 등으로 내실화에 기여

- 서울시 고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
  - 전국 고용률은 2011년(59.1%)부터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에 서울은 3년간 59.7%로 횡보하고 있어 고용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
  - 여성 및 고령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자 수가 높아지고 있는 복지 산업 등의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원
  -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층의 일자리 공급이 맞지 않는 수급 미스매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동시장의 지역·직종별 인력수급의 현황을 분석하는 '서울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'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
- 서울형 제조업 등 영세 산업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서울경제의 내실화를 도모
  - 제조업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의류, 구두 등의 영세 제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 지원을 통한 내실화를 도모
  - 보건, 간병, 가사 등 사회 취약 계층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극화 문제를 완화

### 생활물가 안정화와 가계대출 부담 완화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

- 서울의 민간소비 회복을 위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가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
  - 대체적으로 서울은 저물가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지수 등락률이 5.9%에 해당하는 등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

---

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

- 서민가계의 80%를 차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상담 제도 확충과 무분별한 사금융 광고 규제 등을 통한 불법대출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

## 부록 : 2013년 4/4분기 주요 조사결과

표 1.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

	소비자 태도	생활형편		경기판단		구입태도	
		현재 생활형편	미래 생활형편	현재 경기판단	미래 경기판단	내구재 구입태도	주택 구입태도
2012년 4/4분기	83.8	99.3	98.0	48.3	88.2	97.7	99.8
2013년 1/4분기	87.6	86.1	105.5	53.4	100.4	92.5	99.7
2013년 2/4분기	90.2	87.8	104.5	64.8	99.7	94.4	106.3
2013년 3/4분기	87.7	85.7	102.3	62.1	94.1	94.4	96.9
2013년 4/4분기	91.7	89.4	101.8	71.5	96.8	99.1	104.9

표 2.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

	소비지출		순자산	고용상황	물가예상
	현재 소비지출	미래 소비지출			
2012년 4/4분기	90.4	98.0	94.6	84.7	145.7
2013년 1/4분기	90.2	98.7	97.0	95.7	147.1
2013년 2/4분기	91.8	97.7	95.9	95.5	145.2
2013년 3/4분기	92.0	97.2	95.1	91.8	143.2
2013년 4/4분기	92.3	99.4	97.3	91.2	138.2

본 조사는 2008년 3/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,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, 표본의 신뢰수준은 95%, 오차는  $\pm 3.1\%$ 임(2013년 4/4분기 조사 시점은 2013년 11월 중하순).